

최태원 “한·일 경제연대 만들자”… AI·공급망 협력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단순 교역 넘어 산업생태계 확장
양국 GDP 합계 6조달러 강조
AI·첨단산업·에너지 협력 제시
핵심광물·LNG 공급망 협력 강화
한일상의 공동성명 내년 인천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의 단순 교역을 넘어 양국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한일경제연대’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한 뒤 이를 투자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31일 일본 샌다이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앞으로의 한일 협력을 서로 더 많이 사고파는 관계로만 보서는 안 된다”며 “각자의 시장과 산업을 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일경제연대”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



제15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를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 평가했다. 일본 나라와 한국 안동을 오간 양국 정상의 서투의 교류 통해 경제·사회 분야뿐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안보 등으로 협력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이를 투자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경제인들의 역할”이라며 “경제

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인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현실적인 해답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대, 첨단기술 경쟁 심화도 한일경제연대가 필요한 배경으로 꼽았다. 좋은 기술과 제품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지면서 시장 규모와 공급망, 에너지와 자원까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내수시장 축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인구와 시장이 함께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각자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혼자 만들기 어려운 시장은 함께 만들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은 나누고 서로 잘하는 것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와 시장, 기술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서로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한쪽의 강점으로 다른 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6조 달러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시장이 점점 블록화되고 내부 시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 한 일이 서로의 시장을 넓혀주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협력할 분야로는 AI와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스타트업 등을 제시했다.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과 스타트업 상호 투자, AI 데이터

공유 등도 추진 가능한 과제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협력 가능성을 하나씩 구체화하면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한일 경제계의 신뢰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일본상의가 ‘지역에서 열어가는 한일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최 회장과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을 비롯한 양국 지역상의 회장과 기업인들은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상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의 상호 유통을 추진하고 AI·반도체·클린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한일상의 회장단 교류는 1985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이어져 왔다. 제 16회 회의는 내년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마지노, 한국 차 앞세워 글로벌시장 도전

LIPS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아마존 입점·글로벌 쇼핑몰 구축
美 박람회서 잠재 거대처 80곳 상담

토종 차 브랜드 소기업이 ‘한국 차 문화’를 세계시장에 선보이며 당찬 도전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프리미엄 차 전문 브랜드 ‘Magpie&Tiger’를 내놓은 마지노다.

특히 마지노는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계한 ‘립스(LIPS) 프로그램’ (LIPS)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사명은 ‘마지노선(Magnot Line)’에서 따왔다.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LIPS(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는 지정 한 민간 운영사가 먼저 투자하면 정부자금을 매칭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신제품 개발 및 사업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육성 사업’이다.

김세미 대표가 2018년 창업한 마지노는 하동과 제주 등지의 한국 차를 비롯해 동



마지노 김세미 대표.

아시아의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국내 시장에서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선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맞는 준비, 홍보, 새로운 판로 확보가 필요했다. 이때 김 대표는 LIPS 지원 사업을 만났다.

먼저 30여 종의 제품을 새롭게 촬영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고, 제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를 마련했다. 이를 아마존과 글로벌 온라인 쇼핑

몰, SNS 등에 활용하며 해외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릴 준비도 갖췄다.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다. 현지 판매에 필요한 등록과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했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취향과 구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체험단 운영을 통해 시장조사를 진행하며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판매 전략을 구체화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의 속도를 높였다. 올리브영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플랫폼 ‘올리브베리’ 광화문 1호점에 입점해 첫 달 브랜드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준비를 마친 마지노는 이제 실제 미국 소비자와 만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아마존 판매 결과 평균 4.7점의 높은 평가와 58건의 해외 고객 리뷰를 확보했다.

지난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WOC)’ 박람회에서 현지 로스터리와 카페, 유통업체 등 약 80개 잠재 거래처와 상담을 진행해 이 가운데 1곳과 정식 계약도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소영 “불합리한 규제 건어낼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벤처·스타트업 규제방식 전면 개선
“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도록 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데 역량을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벤처스타트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기부

업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후적인 규제, 전면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만큼 이런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 방식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비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속도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생산 기술 개발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부터 배터리 셀 실증·검증까지 아우르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료·소재·셀로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마련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6일 경기도에서 정부의 ‘슈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과 킥오프 미팅을 열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슈퍼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통상

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달 초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5개 회사를 슈퍼를 기업으로 선정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다. 원료 업체에서 고순도 황화리튬(Li2S)을 공급받아 결정성 제어와 불순물 제거, 입도 균일화 등 양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발한 고체전해질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에 공급된다. 셀 업체는 이를 전고체 배터리 셀에 적용해 성능을 실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원료 공급부터 소재 개발, 셀 적용 및 검증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원관희 기자

중소 850만개 육박… 대표 32% 60대 이상

1년새 20만637곳 늘어 2.4% 증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가 1년새 20만 637개(2.4%) 늘며 2024년 현재 850만개에 바짝 다가섰다.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인 31.7%는 대표자 나이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 종사자수 비중은 80.4%로 전년도와 같은 ‘9980’을 유지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전년(829만8915개) 대비 2.4% 증가한 849만9552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숫자는 중기부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0년부터 점점 늘고 있다.

728만6023개(2020년)→771만3895개(2021년)→804만2726개(2022년)→829만8915개(2023년)에 이어 2024년에는 850만개에 육박했다. 중기부는 2020년 이후 관련 통계 작성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공사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 AX에 14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신설한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트랙 I 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대전환(AI)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트랙으로,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